

# 호스피스 사례 보고서

- 보바스기념병원 완화병동 -

## 의사

- ◆ 환자명: 김○○ (M/31)
- ◆ 진단명: 직장암
- ◆ 주 소: 1년간 둔하게 반복, 지속되는 복통

### ◆ 입원 전 경과

2003년 11월 부산 동인병원,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진단 후 치료 거부를 하고 민간요법 하면서 지내다가 2004년 4월 복통이 계속되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장루 형성술만 시행, 수술한 의사 소견에 간 전이는 육안상 없었다고 하였으며 골반 강내 유착으로 원발병소를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었음. 수술 후에도 복통은 지속이 되어서 2004년 5월 12일 보바스기념병원에 입원함. 입원 10일 전부터 한약을 복용하고 있었음. 좌하복부 장루 주위에 통증과 장루 출혈이 있었으며, 우측 서혜부에 통증이 있어서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함.

### ◆ 과거력

입원 10일 전부터 한약 복용, 진단 후 민간요법 시행해 옴.

### ◆ 가족력

형이 간암으로 2000년도 사망함. 당시에 항암 치료하면서 고통을 받았다는 기억 때문에항암 치료, 수술 등을 거부하고 있음.

### ◆ 이학적 소견

좌하복부 장루와 하복부에 수술로 인한 반흔이 있었으며, 장루 주위와 우측 서혜부에 압통이 있었음.

### ◆ 1차 입원

2004년 5월 12일~7월 27일

입원 시 혈청 크레아티닌 상승으로 복부 CT 검사를 시행 방광 및 하부 요관 주위 침범으로 신수종(hydronephrosis)을 발견하였으며, 간 전이는 없었으나 복강내 대동맥 주위 림프절, 골반강내 근육 및 신경총까지 침범은 있었음. 항암치료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급성신부전에 대한 대증 치료만 시행하면서 복부 통증에 대한 약물 조절을 시행함 (MS contin 60mg/day, naxen 1000mg/day, gabapentin 1800mg/day, chlorpromazine 75mg/day). 장루 출혈과 관련하여, 손으로 분변을 파내는 습관을 금하고, tranzamine을 경구로 사용함. 이와 관련된 2차 감염은 없었음. 입원 후 10일부터 혈청 크레아티닌은 정상화 됨.

### ◆ 2차 입원

2004년 10월 26일~2005년 2월 23일

입원 시 좌측 대퇴부 피부 침습과 좌측 서혜부 림프절 종대가 관찰 됨. 이로 인한 보행장애와 압통이 동반되었으며, 발기 지속상태 (priapism)로 수면 장애가 동반되고 혈청 크레아티닌의 상승이 다시

관찰되어 우측 경피적요관배액술 (percutaneous nephrostomy)을 시행함. 좌측 서혜부는 골반근, 골반강 유착, 좌측 피부 암세포 침습 등으로 하지로 내려간 혈액의 순환 장애로 인한 부종, 신경병성 통증은 항경련제,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등과 모르핀 정맥 주사 (IV morphine 200mg/day)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았음. 환자와의 수 차례 면담 끝에 항암 치료의 동의를 받고 완화적 의미의 항암치료를 시행함 (2004년 11월 11일, 5-fluorouracil, leucovorin, carboplatin).

항암 치료 후 5일부터 좌측 서혜부 통증의 감소와 발기 지속 상태가 호전되었음. 경피적 요관배액을 위한 도관도 제거함. 환자는 항암치료 후 부작용이 특별히 발생되지 않자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원함. Carboplatin, 5-fluorouracil, leucovorin을 3-4회 항암요법을 기존에 계획하였으나 이리노테칸을 비롯한 항암치료 (LV5-FU2 regimen)를 시행 2 cycle 후 부종 및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은 좋아졌으나 CT 추적 검사에서 치골로 전이가 관찰되었음. 항암치료는

중단하고 진통제 사용만 시행하면서 퇴원 조치함. 환자가 국내에 연고지 없이 오갈 데가 없는 상태이므로 항암치료 기간은 병원에 입원해서 지냄. 항암 치료 중단 1달 뒤 퇴원함 (퇴원 당시 처방: 펜타닐 패치 75ug/hr, MS contin 420mg/day, naxen 1000mg/day, tyrenol-ER 1950mg/day, gabapentin 2400mg/day, amitryptiline 30mg/day, mirtazapine 15mg/day, clonazepam 0.5mg/day, zolpidem 1T). 퇴원 후 진통제 요구량이 감소하여 외래에서는 펜타닐 패치는 사용 중단함.

### ◆ 3차 입원

2005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내원 1주일 전부터 식사량 감소, 전신 쇠약감으로 입원. 복막전이로 인한 장마비, 장폐색, 그리고 장출혈로 인한 빈혈이 있었음. L- 튜브로 배액을 시행함. 내원 후 9일이 지나면서 의식이 소실되기 시작함. 의식 소실 후 6일 째 임종함.



■ 간호과정

1. 악성 종양과 관련된 통증

- ▶ 주관적 자료  
“왼쪽 다리 서혜부 부위, 배, 항문이 아파요”
- ▶ 객관적 자료:  
· 통증 조절되지 않아 재 입원함  
· vas - Lt inguinal 5  
    RLQ 1~2  
    rectus 3  
· 왼쪽 허벅지, 서혜부 부어있는 상태로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임
- ▶ 간호목표  
· 통증이 조절되며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 ▶ 간호계획  
· 통증의 정도와 양상을 파악한다.  
· 처방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진통제를 투약한다.  
· 필요시 처방에 따른 진통제를 사용한다.  
· 안위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한다.
- ▶ 간호수행  
· vas 교육과 각 부위별 통증 정도를 사정함.  
· 처방에 따른 진통제를 사용하였다.  
· 필요시 처방에 따른 진통제를 투약하였다.  
· 간병사, 자원봉사자에게 마사지의 필요성과 교육을 실시함  
· 거의 매일 지속적인 마사지가 행해 졌다.  
· 심리적 지지와 기도, 격려를 해주었다.
- ▶ 평가  
· 처음에 경구용 물핀과 필요시 속효성 물핀을 이용해 통증을 조절하다가 통증 증가로 주사용 물핀 사용 퇴원 전 패취를 이용해 통증조절 되어 퇴원하였다.  
·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 졌으며 혼자서 외출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2. 심리적 변화로 인한 수면 장애

- ▶ 주관적 자료  
·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요.”  
· “신경이 예민해졌나 봐요.”
- ▶ 객관적 자료  
· 간호사 순회 시 작은 소리나 빛에도 금방 깨는 모습임  
· 지속적인 수면 이루지지 않고 일어나 ambulation 하는 모습임  
· 로비에 나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짐  
· 불면으로 인한 낮 동안의 활동량 저하와 낮잠시간의 증가보임
- ▶ 간호목표  
·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밤 동안 수면상태를 유지 한다.
- ▶ 간호계획  
· 수면 양상과 패턴을 관찰한다.  
· 유발요인과 악화요인을 확인한다.  
· 처방에 따른 약물을 사용한다.  
· 안위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한다.
- ▶ 간호수행  
· 낮 동안의 Ambulation 격려 외출  
· 환자 원할시 햇살의방(임종실)의 이용  
· 신경과 협진과 처방에 따른 약물 사용  
· 수면용 안대와 귀마개의 사용  
· 아로마 램프 이용  
· 지속적인 자원 봉사자의 방문과 기도
- ▶ 평가  
·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한 결과 수면에 도움이 됐다.  
· 신경과 협진을 통해 약물조절 후 지속적인 수면이 가능해 졌다.  
· 자원 봉사자들의 관심과 기도가 심적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

(간호사, 자원 봉사자들과의 외출)

### 3. 식이상태 변화로 인한 체액부족 (탈수)

▶ 주관적 자료

· “일주일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 했어요.”

▶ 객관적 자료

· 체중감소가 육안으로 관찰되는 상태로 재 입원함  
· 매우 창백하고 허약한 상태보임

▶ 간호목표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사공급과 수액공급을 통해 체액부족은 조절된다.

▶ 간호계획

· 처방에 따른 검사를 시행해 체액부족 상태를 파악한다.  
· 영양과 상담을 통해 식이조절을 한다.  
· 처방에 따른 수액과 전해질 공급을 한다.

▶ 간호수행

· 처방에 따른 검사를 시행했다. (채혈)  
· 영양과 상담을 시행했다.  
· 처방에 따른 수액과 전해질을 공급했다.

▶ 평가

· 입원당시 혈액검사 시행 후 수액 공급과 부족한 전해질 공급, 식사공급 후 휠체어 산책도 하고 기운을 찾는 듯 했으나 일주일 정도 뿐 이었다. 오심, 구토로 인해 식사 진행 어려웠으며 구갈증 해소위해 얼음과 물 정도만 제공되었다.

### 4. 의식 변화 & 임종

▶ 객관적 자료

· 의식 혼돈 진행되어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 하곤 함  
· 매우 허약한 상태로 의사소통 어려워짐

· 수면 양상 증가함

▶ 간호목표

· 처방에 따른 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다.  
· 정서적, 영적 지지를 통해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다.

▶ 간호수행

· 야간에 의식혼돈 증가 시 처방에 따른 약물을 사용 했다.  
· 고향 친구들,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정서적 지지를 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했다.  
· 자원 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기도로 지지했다.  
·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통해 불안이 감소 하도록 했다.

▶ 평가

· 의식 변화가 진행되면서 호스피스팀 미팅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 친구들과 형수 친지들이 의식이 있는 가운데 방문해 환자를 지지하고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누나들이 방문 했을 땐 의식이 거의 없었다. 누나들 방문 후 다음날 오후 임종 예배가 끝난 후 1시간 뒤 편안하게 호흡이 멈췄다.

## 간호사 ... 2

○○님!

○○님과 마지막 인사를 한지도 벌써 한 달이나 훌쩍 지나버렸네요.

5월 푸르름이 한창 이었던 어느 봄날 사투리 섞인 억양으로 인사 건네던 ○○님을 만난 게 벌써 1년 전이구요.

처음 입원상담을 하고 젊은 사람이 완화병동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단 병동에 잘 적응하며 지내는 모습이 한편으론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어요. 고맙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단 말들을 해줬던 ○○님 마음 때문이에요. 어딘가 외출을 갔다 오면 꼭 과거 한 봉지라도 사들고 와서 먹어 보라며 내밀던 그 손도 그 마음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다시 김해에 가족은 없지만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퇴원할 때 “집에 가서 잘 지내세요. 힘들어지면 다시 만나구요.”라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동에서 만났잖아요.

왼쪽 다리가 많이 불편해져서 절룩거리며 걷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다리에 크게 뭔가가 잡히고 불편했으면 좀 더 빨리 병원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엔 다리에 있는 mass를 줄이기 위해 그렇게도 안하던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항암 치료를 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뜬금없이,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데 왜 아직 안 빠지죠?”라며 너스레 떨며 웃었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한쪽 다리도 불편하고 통증 때문이라도 많이 힘들었을텐데 같은 병실 환자가 힘들어하면 걱정하고 먼저 도와주던 모습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각나네요.

때론 그런 ○○님의 모습들이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저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도 하고 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올 6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하얀 얼굴을 하고 희미하게 웃으며 “잘 지냈어요?”라고 먼저 인사 건네던 모습보고 대답은 나오질 않고 그냥 속상한 마음에 쳐다만 봤었죠.

그렇게 힘들어지기 전에 오지, 왜 그렇게 힘들어져서야 오는 건지.....

그때 즈음 다른 병동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틈나는 대로 병실에 들를 땐 하루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져 있는 모습만 본 것 같아요.

병실에 가면 항상 눈감고 있는 모습만 보고 나오고 말을 건네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말을 시작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 동안에 힘들었던 모습이 마지막 숨을 쉬고는 이제야 정말 편안한지 평안한 얼굴로 간 그날, ○○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렇게 ○○님을 보냈답니다.

예전에 받은 아침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때 ~ 그랬다면’, ‘그때 ~ 했었더라면’ 하고 탄식하고 아쉬워 합니다 라고요

저도 잠시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님과 같이 지냈던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좋은 기억들이 많기에 간직하고 감사할 께랍니다.

부산으로 문상 갔던 그 날 고운 국화꽃 가운데 놓여진 ○○님 사진을 보고 처음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던 것처럼 웃어주는 것 같아 찾아간 그 먼 길이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이제 정말 아프지도 힘들지도 않은 그 곳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셨던 부모님, 형과 함께 편안히 잘 지내시길 바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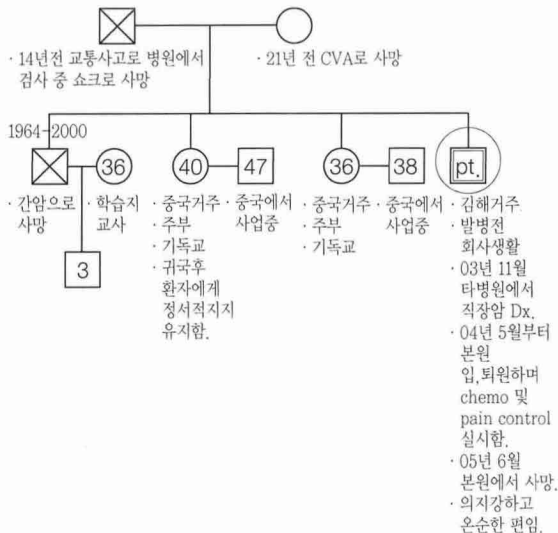
항상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평안하세요.

사회복지사

1. 환자의 일반적 사항

- 1) 성 명: 김 ○ ○
- 2) 성 별: 남
- 3) 연 령: 32세
- 4) 직 업: 회사원
- 5) 종 교: 기독교
- 6) 학 력: 고졸
- 7) 주거형태: 주택(월세- 보증금 5000만원, 월 40만원)
- 8) 경제상태: 中(진료비- 보험회사&저축금&매 정보조)
- 9) 의료보장: 건강보험
- 10) 진단명: Rectal ca. (직장암)
- 11) 입원일: 2004.5.6.
- 12) 사망일: 2005.6.16.

2. 가족가계도(Genogram)



3. 문제사정(Assessment)

- 1) 심리사회적 측면
  -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로 심리적 부담감이 내재되어 있어 정서적지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가족적 측면
  -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누나들의 보호 및 간병에 대한 미약한 지지로 인한 죄책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개입계획(Intervention Plan)

- 1) 심리사회적인 측면
  - 정기적인(주 3회)의료사회복지사의 지지적인 면접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불안감 완화 및 자신의 심리적 변화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bed side로 음악치료 개입 및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연계하여 가족들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족의 방문 시 미 정리된 감정에 대해 해소 및 대화를 유도하여 가족과 환자의 심리사회적 준비과정에 개입하고, 목사님과 협의하여 영적인도를 통한 죽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원조할 계획임.
- 2) 가족적 측면
  - 가족방문 시 겪고 있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환자와의 관계 유지 강화를 위하여 가족모임을 제공할 예정임.

## 5. 종합평가

본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평가 결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의 내재와 가족의 미약한 지지로 인한 감정적 미정리 상태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적 측면에서 환자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가족들의 죄책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따른 환자면담과 병실 방문, 가족상담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입내용은 환자의 심리적, 영적으로는 목사님과 기독교 자원봉사자의 협력 하에 신앙을 통한 불

안감을 감소시키고, 죽음을 수용하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기입원과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음악치료와 종교서적 지원을 하였고, 가족들의 방문시 가족상담을 통하여 죄책감을 감소시키고 감정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환자는 끝까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신앙으로 생활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가족들과의 방문과 관심,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임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 삶을 묻는 너에게

- 아빠가 딸에게 주는 詩 -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줄까

아름답다고  
슬픔 이라고  
기쁨 이라고 말해줄까

우리들의 삶이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단다  
우리들의 삶이란  
나이들어 가면서 알 수 있단다

삶이란 정답이 없다고들 하더구나  
사람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니?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구나  
우리들의 삶이란 가꿀수록  
아름다운 것이라고  
살아갈수록  
애착이 가는 것이라고.

영양사

1. 환자의 영양상태(처음 입원시)

- (1) 성별/ 나이 : 남/ 32세
- (2) 진단명 : 직장암
- (3) 키/ 몸무게 : 174cm / 74.5kg  
표준체중/ 표준체중 백분율 : 66.6 kg / 111.9 %
- (4) 영양상태 평가 : 일반 생화학 검사 수치 및  
식사 섭취 상태 양호  
삼킴 장애나 저작곤란 없음  
인공항문 하고 계심
- (5) 영양요구량 : 2000kcal, protein 75g

2. 개입

본 case는 처음 입원시 섭식장애나 삼킴장애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식사량도 양호하게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섭취 상태나 영양상태는 일반 성인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환자의 영양평가를 하면서 호스피스 환자의 경우는 환자가 요구하고, 즐겨 드시던 음식을 확인하여 제공 하는데 이 환자는 환자의 병에 대한 식사요법으로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셨고, 채식위주의 식사가 병의 진행을 늦추어 준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대로 채식위주의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 요구되는 단백질 양을 채우기 위해 계란이나 두부 종류의 단백질을 매 식사마다 조리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유를 거부하셔서 요플레로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식이 섭취량을 확인 하여, 입맛이 저하 될 때면 김이나 마른 반찬을 제공하여 식사 섭취를 도왔으며, 간식을 매일 변경하여 제공하여 추가의 영양을 공급하였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방문 시에 드시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그 다음 식이에 제공하였습니다.

환자는 라면을 좋아하셔서 라면을 가끔 제공해 드렸으며, 시간이 지나자 생선종류는 섭취하고 싶다고 하셔서 생선을 제공하고 환자의 의견을 물어보며 식이를 조절했습니다.

두 번째 입원시도 같은 식사를 섭취 하셨으며, 직접 방문을 하거나 간호사 선생님들의 말을 통해 환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입원시 변의 냄새가 심하다고 간호사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듣고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향이 함유된 음식을 제외 하였으나 다시 환자분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환자의 원하는 대로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입원시에는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저작이 곤란해지고 섭취량도 많지 않아서 반찬은 다져서 제공하고 죽을 제공하였습니다. 식사를 50% 정도 밖에 하지 못하셨지만 영양보충용 음료수를 제공하여 환자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 주었고, 환자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3. 마무리

호스피스 환자에게 영양적 요구량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case를 보면서 환자가 원하는 것을 즉시 해 줄 수 있는 것, 환자가 식사를 잘 하셨는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해 드렸을 때 감동했던 환자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봉사자 ... 1

2005년 6월 16일 오후 8시쯤 서초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손님들과 저녁식사 중이었다.

식사 도중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 받아보니 간호  
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김○○님이 방금 전에 임종하셨습니다.”

“예?” 갑자기 내 호흡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느  
꼈다.

이틀 전, 병원에서 만났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아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빠른 임종 이었  
다. 이제 나이 31살에 총각이고, 더구나 부모님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간경화와 고혈압으로 돌아가  
셨다. 형님마저도 3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  
셨으니 그동안 기구한 운명으로 외롭게 살아온 청  
년이었다. 남은 혈육인 두 누나가 있는데, 두 분 다  
자녀교육과 사업상으로 중국 심양에 살고 있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친 후 병원으로 달려갔다. 호스피  
스병동의 「햇살의 방(임종실)」에 들어가니, 그는 모  
든 고통 다 잊은 듯 평온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아  
직도 남아 있는 몸속의 온기를 느끼면서, 다음 생애  
는 건강하고 고통 없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간곡히  
빌었다. 그리고 이미 다녀간 자원봉사자 외에 나머  
지 봉사자들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임종을 통보한  
후, 부산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는 앰블런스까지 배  
웅하고는 저녁 늦게 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와의 1년 동안의 만남이 계속 떠  
오름을 지울 수 없었다.

2004년 5월

호스피스 병동에 직장암으로 입원한 그에게 자  
연스럽게 접근하였다. 처음에는 묻는 이야기에 간단  
한 답변만 하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서 고민스러웠는데.....

몇 주 후, 가끔 외출은 가능하다는 간호사실의  
정보를 듣고 다음 주에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으로

산보를 하기로 미리 약속한 후, 다음 봉사일인 6월  
초에 같이 외출을 하였다. 공원잔디에 돛자리를 넓  
게 깔고 대화를 시작하니 공원분위기 때문인지 그  
의 말문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는 아  
프기 전에 근무했던 회사 동료들이 7명이나 문병  
왔었고, 다음 주말에는 경남 김해 고향친구들이 올  
것이라고 기쁨에 넘치는 얘기며, 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원봉사자인  
나도 나이는 먹었지만 언젠가 배워보고 싶다고 하  
였더니 자기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잘 탄다고 자랑  
한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빌려 드리고 싶은데 금년  
초 중국 심양에 계시는 누님 집에 갔을 때 가지고  
갔다가 몸이 아픈 관계로 중국에 그냥 놓고 왔으며  
아쉬워한다. 몇 시간 동안 공원에서 이야기 나누  
고, 다음에는 서울시내 구경을 가기로 약속하고 다  
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편의점에 잠시 정  
차하자고 한다. 그는 음료수와 과자 등을 사더니 병  
실에 있는 주변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역시  
정이 많은 청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2004년 6월 하순

지난번 약속대로 오늘은 서울 시내를 구경 가  
기로 했다. 고향이 경남 김해이고 그 주변에서 현재까  
지 생활하였기 때문에 서울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서울을 한눈에 전부 볼 수 있는 남산 서울타워로 장  
소를 정했다. 서울타워 전망대를 올라가니, 동서남  
북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내 전경을 보면서 어린아  
이처럼 즐거워한다. 언제 준비하였는지 망원경과  
카메라도 가지고와서 사진도 찍자고 하면서, 내 손  
목을 꼭 잡고 포즈를 취하기도 하였다. 남산 팔각정  
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한다. 가족관계, 전  
에 보험에 가입한 것이 요즘은 큰 혜택을 받고 있  
다는 이야기, 항암치료를 할 것인가 고민도 털어놓  
는다. 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하니 수궁이 가는  
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한다. 상태

가 좋아져서 그는 퇴원을 했고 이후 다시 통증으로 재 입원을 하였다.

금년 2월초

호스피스 팀의 간호사님들과 봉사자들이 팀 단합대회를 계획하였다. 우리 모두의 만장일치로 그를 합류시키기로 했고 그도 즐겁게 동참하기로 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 영화 관람을 했고 그를 위해 건강식으로 두부메뉴로 이루어진 맛있는 저녁식사도 하고, 멋진 찻집에서 따끈한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그는 다시 퇴원을 했고, 고향 김해에서 간호사 선생님과 봉사자들에게 가끔 전화를 해주었다.

그가 세 번째 입원을 했다. 너무 힘든 모습으로 다시 병원을 찾은 그는 입원 후 2주일 만에 임종을 하였다. 이번 만남은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그와 함께 한 여러 번의 외출, 외로운 그를 위해 호스피스 팀이 만들어간 이벤트들은 내가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도 잊지 않고 있으리라. 그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지켜준 것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부모님과 형이 있어 외롭지 않을 하늘나라에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그를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삼가 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본다.



▲ 병동에서의 마지막 생일 파티

## 봉사자 ... 2

일 년 전 그날은 초록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나 못있들이 5월의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던 날로 기억된다. 호스피스 환우들을 만나러 완화 병동 문을 열고 들어서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어 환우들의 상태를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며 직장암을 앓고 있는 젊은 청년을 소개해 주셨다. 너무 젊은 환우라서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어떻게 접근해야 환우가 안정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에 내 머릿속엔 많은 것들이 스쳐지나갔다. 환우를 만나기 전 생각들을 정리하고 잠깐 기도를 한 다음 병실에 들어섰다. 그의 첫인상은 썩한 눈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으며 초췌하게 마른 편이라서 인지 약간 예민해 보여서 조심스럽게 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기도로 끝을 맺고 앞으로 좀더 시간을 함께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걸로 기억된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누나들은 중국에서 살기 때문에 신경 써줄 가족이 곁에 없어서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는 그의 가족사를 듣고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 후로 그를 대하는 내 마음은 마치 막내 동생을 대하듯 혹시 어디 불편한데는 없는지 마음이 울적하지는 않는지 살피주고 다독여 주게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가볍게 농담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맞사지도 해주게 되고 손톱도 깎아주며 발도 씻겨주게 되었다.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된다.

봉사를 마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도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셔틀버스를 타고 미금역에 내렸는데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함께 해물칼국수랑 파전을 먹으러 갔는데 손수 새우 껍질을 벗겨서는 내 앞접시에 내려놓는 자상함을 보여주었다. 병원생활을 하면서도 과일을 깎아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병실에 있는 분들과 나눠먹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곰살맞은 구석이 있는 줄은 몰랐기 때문에 고맙고 조금 놀랐다.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청년에게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 시켜주실 수는 없는 걸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간호사님을 비롯하여 간호사님과 호스피스봉사자들은 그와 멋진 데이트도 했다. 영화도 보고 함께 저녁도 먹고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기도 했었다. 그가 잠시 퇴원을 해서 고향집에 있을 땐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병원에서 약을 보낼 때는 평상시 책임기를 좋아하는 그를 위해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세 번째 입원을 해서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다. 정말 한번도 그런 모습을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그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맺혀졌다. 글썽이는 눈물을 그가 봤는지 내 두 손을 꼬옥 잡아 주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꺼예요.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하며 약속을 했었다. 그 후로 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소변줄에 콧줄까지 달고 나서 하는 말이 “콧줄까지는 끼지 않으려고 했는데...”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자주 병원에 들러 상태를 확인하곤 했었다. 그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건 힘들지 않게 하느님나라에 갈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그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결코 외롭지 않게 자주 곁에서 지켜 주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마지막 날에 다급한 병원의 연락을 받았다. 순간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으며 그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졌다. 「햇살의 방」으로 옮겨져 있는 그의 호흡이 참으로 힘들어 보였다. ○○씨! 하며 그의 손을 잡자 그는 손에 힘을 주어 꼬옥 쥐어 주었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면서도 힘들게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그렇게 나의 손을 힘주어 쥐어주었던 것이다. 하느님, 부디 이 영혼을 받아들이시어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게 그를 품어주소서. 간절히 기도를 마치고 두 누나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일년이 넘는 병원생활동안 처음으로 누나들을 볼 수 있었다. 그와 닮아서 말하지 않아도 누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하느님 나라로 이사를 했다. 지금도 나의 기억 저편에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의 모습과 함께 했던 지난 아름다운 날들이 아직 머무르고 있다.



봉사자 ... 3

**또** 다시 ○○씨를 보았을 때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지요.

그전에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얼굴을 지압해주고 등을 만져주고 다리와 발을 만져주면

고마워하며 여기가 불편해요, 여기가 부었어요, 엄마처럼 대하려는 우리들을 반기던 그 얼굴이 아닌 고통의 모습이었어요.

○○씨 가기전날 많이 괴로워하며 내는 신음 소리는 내 마음도 저려왔어요.

고향 친구들이 오고 매형도 왔지만 그들은 애써 태연하려고 했고 무서워하는 듯이 보였어요. 내가 ○○씨의 손을 만지자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혼자 떠나는 길 고통과 두려움으로 손을 잡고는 신음 소리만.....

“고통스러운데 어서 가렴”

간병사님의 말씀이 아직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잠시 후 ○○씨의 형수가 와서 조카들의 사진을 초점 잃은 그의 얼굴에 대어주며 울고 있었어요.

머칠 전 너무 부어서 천근같은 ○○의 다리와 발을 씻기고 만져주며 홀로 병마와 싸우며 홀로 버텨왔음에 목이 메어 왔었어요.

부모님과 형님도 암으로 먼저 보내고 이제 ○○도 떠나니 ○○씨가 믿는 신이시여! 그의 고통을 덜어 주소서!

그리고 저의 관세음이시여!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관세음이시여!

○○씨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씨의 하늘나라로 보내주소서.....